



의약품 포장 유니버설디자인

Medicine Package and Universal Design

이 호 송 /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1. 유니버설디자인 이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지 사례에 대해서는 과월호(2007년 9월호, 통권 173호)를 통해서 필자가 게재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그 개념을 설명한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건강한 성인은 물론이고, 고령자나 어린이, 임산부,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 각기 다른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제품이나 환경시설, 서비스 등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노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품 디자인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로 인해 건강한 사용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오해를 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유지 차원에서 불편을 느끼는 노약자와 같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이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건강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맞춰진 디자인은 적응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동질의 편익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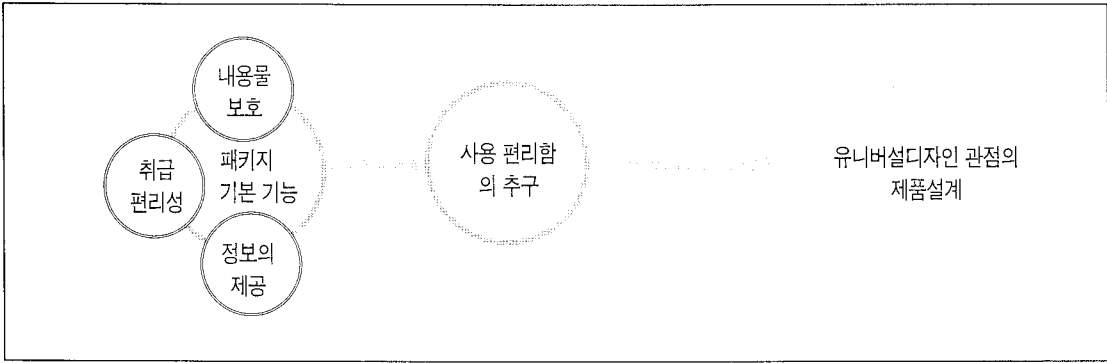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할 때, 차츰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며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비단, 거동이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듯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나 인체 특성 등을 파악하고, 감성과 물리적인 기능에 부가하여 과학적인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

포장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내용물의 특성이나 사용방법 혹은 취급방법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쉬운 방법, 거기에 추가하여 브랜드의 존재감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용이 불편한 일용품 가운데 의약품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서 설명서가 읽기 어렵고, 용기와 포장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1] 의약품 포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



특히 30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불만이 높았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의약품의 사용 불편함에 관한 불만에서 남녀의 차이는 볼 수 없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을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60대 이상은 30%를 넘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설명서 내용이 알기 어렵다', '용법에 대한 문자가 너무 작다', '책임감 없는 모호한 표현이 많다', '불필요한 설명이 많다' 등과 같은 설명서의 사용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60대 이상에서 '포장을 손가락으로 쉽게 개봉하기 어렵다', '2정으로밖에 절단이 안 되고 휴대가 불편하다' 라는 포장과 용기에 애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사정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은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의약품류 포장을 손에 쥐고 개봉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좌측의 제품사진은 손톱을 접촉제로 밀봉된

틈새에 끼워 넣고 뜯어내야 하는 비교적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개봉장면이다.

이에 비해 우측의 제품사진은 패키지의 표면에 적용된 절개선 가운데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손쉽게 개봉하도록 된 디자인이다.

더구나 좌측의 포장이 일단 개봉 후에는 재밀봉이 어려운 반면에 우측의 포장은 내용물을 덜어내지 않고 재밀봉 후 보관이 가능한 편리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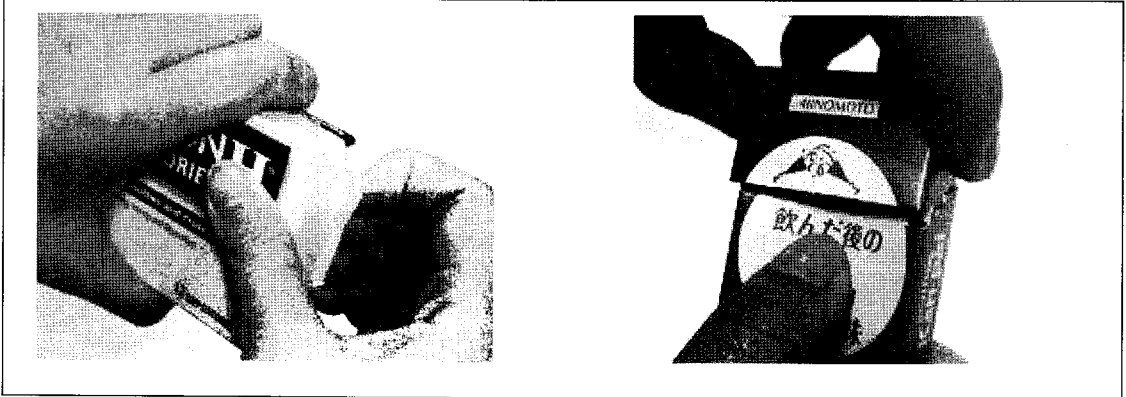
[사진 2]는 같은 방식으로 절개선이 적용된 과자상자로서 어린아이가 손쉽게 개봉이 가능하고 날개 포장된 내용물들을 위해 재밀봉이 가능하며, 보관성까지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패키지의 좋은 사례이다.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는 급속한 인구 구성층의 고령화 진전 영향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 수립은 물론 제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의약품에 있어서도 그 특성상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고령자들을 주요 사용자층으로 꼽을 수 있다.



[사진 1] 의약품 포장 개봉 예



현실적인 예로 고령자의 많은 수가 노안 혹은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외에도 특정 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색각(色覺) 장애도 적지 않다. [사진 3]은 안과 질환에 따른 포장인식 차이 특성을 시물레이션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패키지에 있어서 시인성과 관련된 배려사항으로서는 [표 1]과 같은 배려사항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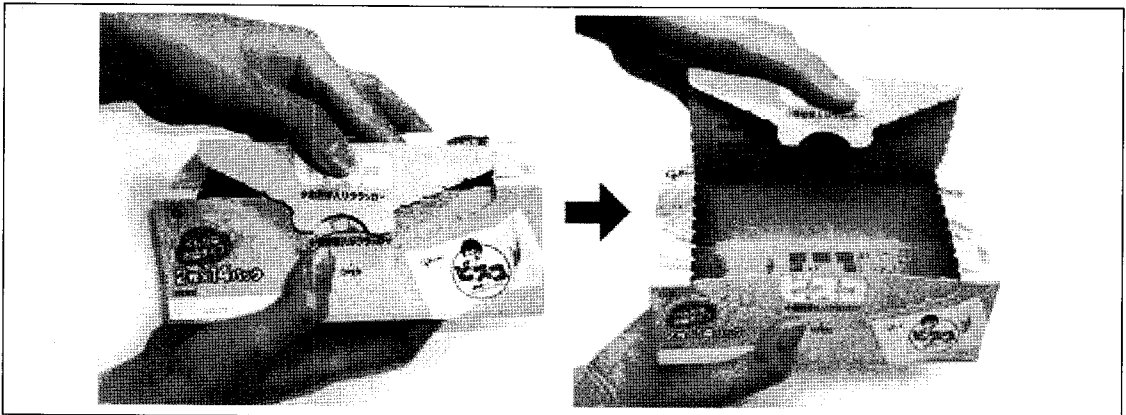
3. 유니버설디자인 의약품 포장 조건

의약품 포장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배려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의약품의 내용물 측면 특징이 알게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효능, 성분, 용량, 복용방법,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알

[사진 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패키지



[사진 3] 안과 질환에 따른 포장인식 차이 시뮬레이션



기 쉽게 표기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 시 오남용과 같은 주의사항과 같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민감한 정보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무심결에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고안을 필요로 한다.

② 사용 중에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보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차례 반복되는 여닫는 행위로 인

해 재밀봉되어야 할 부분이 느슨해지거나 오염에 약한 재질일 경우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개봉되어진 다른 약품들과 날개로 섞인 채 보관되어도 쉽게 용도에 따른 구별이 되는 것도 보관성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찾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식별이 쉬운 디자

[표 1] 패키지 시인성 관련 배려 사항

사용자 유형	필수 고려 사항	배려사항
시각장애인(전맹)	· 시각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 촉지정보를 병행한다.
시각장애인(약시) 고령자 공통	· 작은 문자를 읽을 수 없다. · 조도에 영향 받기 쉽다. · 눈부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정보의 판별이 어렵다.	· 커다란 문자를 채용한다. · 반사와 배색 등 소재에 주의한다. · 눈높이에 맞춰 레이아웃한다.
시각장애인(색각이상) 고령자 공통	· 색 구분이 어렵다.	· 판별하기 어려운 유사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색 이외의 표현방법을 채용한다.
시각장애인(시야협착) 고령자 공통	· 시야가 좁다.	·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시각정보를 레이아웃한다.
어린이	· 이해력과 판단력이 개인차가 크다.	· 인식하기 쉬운 위치와 형태로 한다. · 이해하기 쉬운 문자와 표현으로 한다.
외국인	· 한국어를 알기 어렵다. · 생활습관이 다르다.	· 영문과 그림기호를 병기한다. · 사용방법과 주의환기 등에는 다국어로 표현 한다.



[표 2] 포장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 항목

구분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구입	상품의 식별	이 상품이 무엇인지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가? - 구입 시의 걱정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상품 식별이 가능한가? - 촉각식별
	운반	운반하기 쉬운가? - 형상, 무게, 크기 등
개봉	개봉부분	개봉 부분은 알기 쉬운가?
	개봉방법	개봉구조는 간단한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것의 개봉법 표시는 알기 쉬운가?
	열기 쉬움	열기 쉬운가? - 적은 힘으로 개봉(손잡이), 개봉자국, 미끄럼 방지 고안 등
사용	잡기 쉬움	잡기 쉬운가? -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형상,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미끄럼 방지)
	사용법	사용법은 알기 쉬운가? 설명을 요하는 것의 사용법 표시는 알기 쉬운가? 실제로 사용하였을 때 사용이 쉬운가? - 편한 자세, 적은 힘으로 사용, 용기 안정성 등
		사용상, 주의해야 할 것은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는가?
		내용물을 간단히 꺼낼 수 있는가(부울 수 있는가)? - 잘나오지 않음, 너무 많이 나옴 등
	내용물 꺼내기 쉬움	잘 흘리는 일은 없는가? - 계속 사용할 경우
		마지막까지 내용물을 쉽게 꺼낼 수 있는가? 모두 사용 가능한가?
보관	재밀봉성	재밀봉 방법은 간단한가? 부득이하게 복잡한 것, 재밀봉 표시는 알기 쉬운가? 재밀봉이 간단한가?
		보관의 배려
분리·폐기	분리와 폐기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 소재별 분리, 접기, 부수기 등	
안전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사용중에 상처 등의 위험성
		오사용, 오음식한 경우의 대응 표시는 알기 쉬운가?

출처 : '유니버설디자인연구(2006)', 유니버설디자인연구회,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진열대에 놓인 많은 의약품 가운데에서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거나, 한눈에 보아서 제품명과 제조사, 용도 등을 알기 쉬어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시장에 선진입하여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제품의 특징을 따라하는 경쟁상품들이 출현하게 되면 더욱 차별화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된다.

④ 제품의 운반이나 내용물을 꺼내기 편리한 재질과 구조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려놓거나 계산대까지의 운반 과정에서 떨어뜨리기 쉽거나 상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을 꺼내거나 따르기 쉽도록 포장 개봉방법이 편리해야 하며, 포장의 깊은 곳에도 손이 쉽게 닿을 수 있거나 잔량을 남기지 말고 사용 가능해야 한다.

⑤ 사용환경과 사용시간대, 사용대상자 등의 특성에 따른 배려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온이 낮은 겨울이나 어두운 밤, 응급상황이나 복잡한 장소 등에서 사용이 예상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영향으로 인해 개봉과 사용에 수반되는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약조건을 고려한 포장방법이어야 한다. 반대로 어린이에 의한 장난이나 오용 방지 차원에 대비한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려된 방법도 있다.

⑥ 사후 폐기에 있어서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폐기 시 용기와 분리가 용이한 상표 부착이나 용기 주입구에 장착된 노즐 등과 같이 복합재료로 형성된 경우, 분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또한 폐기 시에 부피 축소가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경우나 안전 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폐기방법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한다.

⑦ 디자인에 담긴 사용자의 인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의약품 포장이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라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있어서는 곤란하다. 예를 들면 투약을 위한 적용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묘사가 불필요하게 과하여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거나 병약한 사람임을 암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포장과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앞서 열거한 배려점을 보면 의약품이라는 내용물의 특성 상 오용으로 인한 사고방지 차원에서 더욱 배려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으나, 크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식품용 포장이라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공통 사항일 수도 있다. 달리 표현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도적인 특별한 기술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디자인을 기획하는 첫 단계부터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 결과를 위해 자연스럽게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디자인이라도 효율적인 작업 과정을 통해 원만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조가 될 수 있는 자체적 평가항목을 필요로 한다. [표 2]는 포장에 있어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이다. 포장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차원에서도 좋은 포장디자인을 위한 구별 기준으로써 활용 가능하다. ㉒